고관절과 척추 골절에 비해 손목 골절 환자들에 대한 골다공증 검사 및 치료가 적게 이루어진다.

공현식, 오원석, 정문상, 오주한, 이영호, 백구현

서울대학교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목적: 고령의 취약 골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사와 치료가 강조되고 있지만, 의사들이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을, 특히 척추 이외 부위의 골절에서 놓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에 저자는, 50세 이상 여성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부위의 골절을 치료하는 전문의들 사이에,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전 인구의 97%가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의 2007년 한해 집계 자료를 바탕으로 후향적 국가 기반 코호트 연구를 시행하였다.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고관절, 척추, 그리고 손목 골절의 발생율을 구하였고, 각각의 골절 환자에서 시행된 골밀도 검사와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빈도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결과: 2007년 한 해 동안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고관절 골절이 31,540예, 척추 골절이 58,291예, 손목골절이 61,234예 발생하였다. 고관절 골절 환자 중 7,095예(22.5%), 척추 골절환자 중 16,779예(28.8%), 그리고 손목 골절 환자 중 5,348예(8.7%)에서 골다공증 검사가 시행 되었다. 골다공증에 대한 약물 치료는 고관절 골절에서 7,060예(22.4%), 척추 골절에서 17,551예(30.1%), 그리고 손목 골절에서 4,594예(7.5%)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결 론: 취약 골절 환자들의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국가 기반 코호트는 손목 골절 환자들에 대한 골다공증 검사와 치료가,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 환자들에 비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골절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 사이

에 나타나는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색인 단어: 손목 골절, 취약 골절, 골다공증